

긴급조치9호 철폐투쟁 30주년 기념문집 30년만에 다시 부르는 노래 (유신독재를 넘어 민주로)

- 엮은이 : 긴급조치9호 철폐투쟁 30주년 기념행사 추진위원회
- 펴낸이 : 이상경
- 펴낸곳 : 자인
- 발행일 : 2005년 5월 13일

1. 내용의 일부 혹은 전체를 인용, 발췌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저자와 출처를 밝혀 주셔야 합니다.
2. 본 자료는 <http://www.kdemocracy.or.kr/KDFOMS/>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민 주 화 운 동

당신이 만든 우리의 희망입니다

민주주의 발전과 통일한국의 미래.
대한민국의 저력을 이야기 할 때마다
민주화운동의 소중한 경험과 정신을
힘주어 들려주십시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우리들의 소중한 뜻이 펼쳐지도록
국민들과 함께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Korea Democracy Foundation
서울시 중구 정동 34-5 배재정동빌딩 1-3층
전화 02-3709-7500 팩스 02-3709-7530
<http://www.kdemocracy.or.kr/>

결국 박정희가 죽고 긴급조치가 끝나긴 했지만 진정한 봄이 올 날은 아직 멀었고 그렇게 79년은 저물고 80년이 밝아오고 있었다.

함성 또 함성의 '79년 서울대



이원주_ 서울대 국어교육과 76학번, 인천민중교육연구원, 전국노동운동협의회 정책실장, 민주당 청년위원장, 사회평론기자, 교보생명 Financial Planner(현)

1976년 3월 어느 날 서울대 교정. 인문대앞 게시판에 다닥다닥 나붙은 각종 서클¹⁾들의 신입회원 모집 광고를 유심히 들여다보는 한 신입생이 있었다. 전공은 어차피 2학년이 올라가서부터 본격 공부하게 되니 1학년 때에는 교양을 넓히는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다고 마음먹은 그는 철학개론, 사회학개론, 과학사개론 같은 전공 외 교양강좌를 최대한 수강 신청한 터였다. 거기에 더하여 대학의 정식 커리큘럼이 아닌 동아리 활동을 통해 공부겸 친교를 넓히면 더 좋지 않을까 싶어 들어갈 만한 서클을 찾고 있었던 것이다.

인생의 성공을 결정하는 것은 당연히 성실, 노력, 지식과 같은 필연적 요소이겠지만 그 방향을 돌리는 것은 우연의 힘이 때로 크다. 이 우연한 선택이 이후 그의 인생의 행로를 정하는 선택이 되리라는 건 그도 미처 알지 못했다.

몇 달 지난 후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이렇게 해서 내가 들어간 '사회과학회'²⁾의 서른 명에

1) 뒤에 후배들이 쓰기 시작한 동아리가 훨씬 정감이 가는 좋은 말이지만 여기서는 70년대 당시의 분위기를 가능한 전하기 위해 그 때 쓰던 그대로 서클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달하는 신입회원들 가운데 선배들과 아무 연고도 없이 제발로 찾아와 가입한 회원은 오히려 소수였다. 그래서였을까. 첫 번째 책으로 선정된 카의 〈역사란 무엇인가〉를 가지고 세미나를 할 때나 4월 중순 첫 MT를 갔을 때나 나는 선배들이 아니라 동기들에 의해 주눅이 많이 들 있었다. 왜들 그리 똑똑하고 말도 잘 하던지...

흐릿한 옛 기억을 더듬어 볼 때, 매주 진행된 세미나가 우리 사회와 역사에 대해 인식의 지평을 넓히고 동시에 무엇이 문제인가를 알게 하는, 점진적으로 서서히 진행되는 이른바 의식화의 과정이었다. 반면에 MT나 농촌활동 혹은 시위 참여 같은 이벤트는 공동 생활이나 체험을 통해 선배, 동료들과의 정서적 일체감을 확고히 할 뿐 아니라 행동하는 지식인으로서의 결의를 극적으로 다잡는 효과가 있었다. 1학년 말이었던 76년 12월 박석운, 이범영(작고), 백계문 등 73학번 선배 세 명이 주동한 학내 시위에 처음으로 동원, 참여하였는데, 몇 번밖에 얼굴을 보지 못했지만 한사 선배인 석운 형이 비참하게 끌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난다.

아무튼 동료들에 대해 열등감을 느끼면서도 그런대로 잘 버텨낸 덕분인지 2학년 2학기가 끝나갈 즈음, 즉 77년 10월경인가 11월에 나는 서클연합회²⁾에 나갈 한국사회연구회의 대표로 지명되었고 이 때부터 약 2년여에 걸친 나의 본격적인 반유신투쟁 학생운동이 시작되었다.

실제로 80년 12월 전두환의 쿠데타 직후, 안기부와 보안사는 합동 수사를 통해 이 서클연합회 조직을 복과 연계된 대규모 조직 사건으로 조작하려 하였다. 김병곤 선배(71학번, 작고)로부터 시작되는 상부의 그림을 그려놓고 연합회 73이나 74부터 77, 78조직까지를 하부로 짜맞추려 하였던 것인데, 허리에 해당하는 74부터 76으로 이루어진 연합회 조직의 실체를 규명하지 못해(보안사에서 수사 받던 한달 동안 나는 77조직을 필요에 의해 나와 김창호가

의논하여 만들었고 76이상의 연합회 조직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끝까지 버텼다.) 미수에 그친 적이 있다. 뭔가 있는 것은 확실한데 실체를 알 수 없다고 해서 안개 무자를 써 무림사건으로 불린 것이 그것인데, 만약 이 조작이 성공했다더라면 민청학련을 능가하는 최대의 조직 사건이 되었을 것이다.

다른 분들의 여러 글을 통해서도 이야기가 되겠지만 유신체제의 엄혹함은 대단한 것이었다. 당시대를 저항의 주역으로서 직접 겪어보지 않은 사람이라면 백 번 설명해도 피부에 와 닿도록 이해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사람을 죽인 무도함에서는 전두환이 훨씬 더하지만 80년대 초 저항운동의 조건이 그래도 상대적으로 넉넉한(?) 상황이었다면 지나친 비교일까.

헌법 개폐에 관한 일체의 논의를 금하며 이를 위배할 시 영장없이 구금, 구속한다는 긴급조치9호, 민주주의가 넘치는(?) 지금 시대엔 어떻게 이런 발상을 할 수 있었는지부터 납득하기가 어려운, 그야말로 실소를 흘릴 수밖에 없는 일이지만 70년대 후반 이는 엄연한 현실이었다. 시위 주동이면 곧 제명에 기본 3년형을 공식처럼 언도 받으며, 한번 단순 가담하는 것만으로도 정학 이상의 징계를 각오해야 하는 상황, 더욱이 핵심 인사들에 대해 맨투맨 마크식의 사찰이 이루어지는 상황에 맞서 학생운동은 승리의 방정식을 풀어야만 했다.

핵심 주체역량을 최대한 보전하는 한편, 후배 양성을 제도화하고 그러면서도 시위 주도 역량의 안정적 배출을 이루어낼 수 있는 시스템과 함께, 엄혹한 학원 사찰에 대응하는 보안 의식과 세부 수칙의 생활화가 필요하였다. 후배 양성 및 동원 역할을 맡은 3학년과 주동자 배출이라는 4학년의 역할 분담이 그것이었었는데, 이는 76, 77년부터 탐색, 시도되다가 78, 79년 들어 정착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79년도에 내가 1인 지휘부로 일할 수 있었던 것도 내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76, 77 학년별 연합조직이 완전히 궤도에 올라 운영되었던 데 힘입은 것이었다) 이를 위해 이념서클들은 3학년 가운데 대표(서클장)를 정하여 후배 양성을 책임지도록 하였고, 또 다른 대외 대표를 선발하여 서클연합회 조직을 구성, 학내 운동을 이끌어가도록 하였는데 양자가 겹치는 경우도 많았던 것으로 안다. 당시 서클연합회에는 한국사회연구회, 크리스천 아카데미, 농촌법학회, 국제경제학회, 역사철학회, 농업경제학회, 농촌경제연구회 등 열 개 정도의 이념서클들이 참여하였다.

2) 이것은 합법성을 얻기 위해 학교 당국에 등록된 명칭이었고 실명은 한국사회연구회이다. 나는 한사 107로 입문하였다.
3) 이것이 정식 명칭이었는지는 확실치 않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공식적으로 정해진 명칭은 없었다. 유신체제의 극단적인 탄압 상에 관해서는 여기서 새삼 언급할 필요가 없었지만, 당시 열 개 정도에 달했던 이념 서클들의 연합 조직이(아마) 그 실체가 밝혀질 경우 학생운동 핵심 역량들이 단번에 씨가 마르게 되는 타격이 명약관화했다. 그 뿐 아니라 독재정권이 위기 탈출용으로 전가의 보도처럼 써 먹던 간첩단 사건으로 조작될 가능성도 충분했기 때문에, 이 연합 조직은 사람과 활동 및 규율의 실체가 존재할 뿐 명칭, 강령, 규약 등 성문화된 어떤 형식도 규정도 가지지 않았던 것이다.

나의 경우로 말하자면, 3학년에 올라가기 몇 개월 전 서클연합회에 나갈 대표로 선정되었는데 그 얼마 후 후배 양성까지를 책임지는 서클장을 겸임하게 되었다.

78년 서클 신입생 환영회에 관한 추억의 한 토막, 서클장으로서 첫 활동을 신입생 환영회로 시작했는데 스무 명이 넘는 신입 회원들의 이름을 회식 자리에서 다 외웠던 기억이 난다. 기억력이 별로 좋지 않은 나로서는 대단한 집중력을 발휘했던 셈인데 그만큼 신입생의 양성을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나는 서클장으로서 후배 양성의 책무에 별로 힘을 쏟지 못했다. 3학년 2학기 들어 77학번들로 이루어진 서클연합회 조직을 지도하는 일 등 대외적 책무가 더욱 많아져 불가피한 측면이 컸지만 보안상 이유로 동기들에게조차 나의 연합회 활동 사실을 밝힐 수 없었기 때문에 힘들었다. 어쨌든 권호영(법학, SK), 박승호(계산통계, 전태일을 따르는 민주노동연구소), 김창희(철학, 동아일보), 이권훈(무역, 삼일회계법인), 임성래(수학, 저술 준비중), 이정현(역사, 교사), 오석중(교육, 강서교육청) 등 동기들이 후배 양성에 많은 역할을 해주었다.

79년 개강을 앞두고 1년 간 학생운동을 어떻게 전개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 동지들 사이에 논의가 있었다. 유신체제에 반대하는 민주화투쟁이라는 학생운동의 목적이랄까 기본 방향이야 해가 바뀌었다고 해서 달라질 까닭은 없는 것이었기 때문에 고민은 한 해 동안의 투쟁 전략 및 전술에 집중되었다. 결국 민주화를 위한 정치투쟁에 역량을 집중하되 노동자 계급의 의식화를 위한 선전 활동을 아울러 전개해 나간다는 것, 그리고 반유신 민주화 운동의 대중 의식을 고취하고 세력화하기 위한 시위 투쟁은 1학기를 징검다리하여 2학기, 더 구체적으로는 9월에 집중적으로 조직한다는 것 등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러하여 1학기 최소 1회, 2학기 최소 3회의 시위를 조직하며, 특히 9월에는 7일에서 10일 간격으로 시위를 집중 조직하여 학생운동의 핵심부에서 조직한 민주화투쟁이 대중의 자발적 투쟁으로, 서울대학교에서만 적어도 수천 명 이상이 참여하는 대규모의 반유신 투쟁으로 승화하도록 이끌며 이를 바탕으로 타 대학으로 투쟁 열기가 확산되도록 한다는 방침을 수립하였다. 79년 초 학생운동의 내외적 조건을 감안할 때, 권호영, 최상일(사회, MBC), 김용흠(국사, 연세대 강사), 김창희(철학, 국정홍보처장), 김병렬(국어교육), 김부겸(정치, 국회의원),

배규식(전기, 노동연구원), 김종복(목사, 재 캐나다), 최주옥, 조남일(작고) 등과 같이 2학년이나 3학년 때 제적, 구속되거나 군에 끌려간 친구들을 빼고 79년 한 해 동안 시위를 주동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되는 76학번 4학년들이 20명 내외였는데 시위주동 한 팀을 꾸리려면 4, 5명이 필요하고 거기에 더하여 선전 투쟁을 담당할 팀도 꾸려야 한다는 것까지 포함하여 계산할 때 전술적으로 힘의 집중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이렇게 해서 79년도 1학기에 첫 번째로 치고 나갈 팀을 조직하는 작업에 착수했는데 생각만큼 일이 쉽지는 않았던 것으로 기억된다. 누구를 1차로, 누구를 2차 혹은 3차로 할 것인지 순번을 정하는 것도 어려웠거니와 나름대로 의중에 둔 1차 팀 멤버들과 대화를 하다 보니 일부 동지들이 소속 서클 내부의 사정이나 기타 무시하기 힘든 이유를 들어 두 번째 혹은 세 번째 팀의 멤버로 뛰었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던 것이다. 이런 약간의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대부분의 동지들이 정의를 위해 한몸 희생할 각오에서 근본적인 흐트러짐이 없었고, 그리하여 곧 권희도(체육교육, 에버테크), 김진태(외교, 열린우리당), 김유선(경제, 노동사회연구소) 외 박, 김 등 5명으로 첫 팀을 짤 수 있었다.

그러나 결국 79년 서울대학교에서의 상반기 시위 투쟁은 불발하고 마는데 이는 일부 팀원 구성을 잘못된 나의 책임이 컸다. 사실 이에 얽힌 사정은 30년이 지난 지금도 말하기가 쉽지 않다. 시위 주동을 굳게 다짐하고서도 정작 팀에 합류하는 단계에 이르러 흔들렸던 친구가 있는가 하면, 팀에 합류하여 준비를 계속 함께 하다가 선언문 초안을 작성하고 카터 방한 맞춰 최종 택일만 남은 시점에 느닷없이 노선투쟁 비슷한 문제제기를 하면서 애써 준비해 온 시위를 포기할 것을 주장한 친구도 있었다. 전자의 경우도 어느 정도 타격이 되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네 사람으로 치고 나가지 못할 것도 아니기에 별다른 흔들림 없이 준비를 해 나갈 수 있었다. 그러나 후자의 경우는 심각한 문제가 되었는데, 나하고 만나 79년 서울대 민주화 시위 첫 팀의 일원으로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이래 다른 세 명의 동지들과 팀웍을 맞춰 잘 준비해 오던 김이 어느 날 갑자기 이해하기 힘든 논리를 대면서 교정에서 시위 투쟁을 조직하는 것 자체를 반대하고 나섰던 것이다(그 해 10월 남민전 사건이 터지고 그 조직원 명단을 보고서야 비로소 김이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짐작할 수 있었다).

카터 방한에 맞춰 교내 시위를 조직하려던 계획이 망가진 셈이 되었는데 이 때 이미 5월

하순을 지나고 있어 상반기 시위 조직은 안타깝게도 미수로 끝날 수밖에 없었다. 생각다 못한 나는 유인물팀을 이끌던 한철희(국문, 돌베개)에게 긴급 구원 요청을 날렸고, 이에 철희는 윤옥준(국문, 정방학원)과 함께 카터 방한을 반대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제작하여 교내에 배포하였다.

당초 하반기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하고 상반기에는 비중을 크게 두지 않았다 해도 준비과정상의 문제로 인해 시위가 무산된 것은 뼈아팠다. 개인적 장래의 희생은 물론 각자가 이끄는 팀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첫 타자로 나서겠다고 결단해 준 희도, 유선, 진태 등의 마음고생이 심했던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 79년도 운동의 지휘역을 맡은 나로서는 책임을 통감하지 않을 수 없었다. 다만, 경찰에게 뒤를 밝힌다든가 하는 보안상의 실책으로 역량의 손실을 초래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위안으로 삼으면서 하반기의 성공을 다짐하였다.

연초에 수립한 방침에 따라, 그리고 상반기의 실책을 만회하기 위해 9월에 시위를 집중하기로 하고 준비에 들어갔는데, 1차를 9월 11일에, 2차를 1주여 후인 9월 20일에 연속적으로 터뜨려 대중의 열기를 고조시킴으로써 두 번째인 9.20 시위 때 적어도 2~3천 명 이상의 학생 대중이 참여하는 대규모 시위 투쟁으로 이끈다는 목표를 재확인하였다. 그리고 이 작전은 멋지게 성공하였다.

9.11 시위팀은 김준희(법학, 웅진닷컴), 김낙년(경제, 동국대), 김종채(사회, 성공회대), 김진태, 신상덕(사회, 대우건설) 등 5인이, 9.20팀도 김용호(철학, 성공회대), 윤언균(불문, 학술진흥재단), 김종수(동양사, 도서출판 한울), 오석중, 김창희 등 5인이 주동을 맡기로 하고 두 팀 모두 준비에 돌입했는데, 나는 두 팀의 준비 상황을 챙기고 점검하는 한편 현무환(독문, 웅진미디어), 최영선(사회, 한겨레신문), 김명인(국문, 인하대) 등 당시 3학년인 77학번 후배들로 구성된 서클연합회를 지도하면서 분위기를 띄우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또한 학내 유인물팀은 시위 전후에 '지하신문'을 연속 발간하여 대중의 반유신투쟁 열기를 고조시키는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하였다.

이렇게 이루어진 9.11 시위는 2천 명 이상의 학생들이 동참하여 최루탄과 투석전이 난무하는 대규모 투쟁으로 진행되었고, 9.20 시위 또한 그 이상의 규모로 이루어졌으며 이튿날인 9월 21일에도 자발적 투쟁이 이어졌다. 특히, 특정한 주동자도 없이 전날의 분위기를 이어받

아 이루어진 9월 21일의 자발적 투쟁은 당시로서는 매우 이례적인 사건이었으며, 객관적으로 어려운 여건 하에서 힘의 집중이라는 전술을 효과적으로 적용, 실천함으로써 대중의 투쟁 열기를 드높인 모범적 사례로 기억해도 좋을 것이다.

물론 수천 명의 학생들이 참여하고 기백 명 이상이 연행되었으며 9명이 구속되고 수십 명의 학생들이 징계를 당한 이 세 차례의 반유신투쟁에 대해 당시의 신문이나 방송들은 단 한 줄도 단 한 마디도 보도하지 않았다. 그러나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고 하지 않았던가. 아무리 신문, 방송에 재갈을 물린다 해도 전해질 소식은 필요한 이들에게 전해지는 법이다.

여기서 당시 학생운동의 보안 의식에 대해 한마디 하지 않을 수 없다. 시위 주동 열 명에 유인물팀 일곱을 합쳐 17명에 달하는 4학년 핵심들이 거의 동일한 시기에 움직인다는 것은 엄중한 학내 사찰의 상황 속에서 극도의 보안상 주의를 요하는 일이었다. 더욱이 이들 중에는 경찰의 사찰 대상인 친구도 다수 있었는데, 어느 한 사람 보안상의 실책 없이 계획한 대로 시위를 성공시켰다는 것, 나아가 77, 78 등 기백 명 이상의 후배들이 시위 현장에 조직적으로 동원되는 과정 어디에서도 보안상 빈틈이 없었다는 것은 지금 생각해도 대단하고 자랑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경찰에 잡혀갔을 때의 수사 대처방법 또한 보안 수칙의 중요한 한 부분이었다. 가령, 두 팀의 시위 준비에 관여했던 나는 창회를 제외한 9명의 친구들이 모두 경찰에 연행되어 수사를 받는 상황 속에서도(바로 뒤에 이야기하겠지만 유인물팀을 이끌다가 경찰에 검거된 친구들까지 합하면 9월과 10월 두 달 동안 구속된 76 동기들은 무려 16명에 달했다) 아무런 거리낌 없이 학교에 나갔는데, 친구들로부터 내 이름이 나올 수도 있다는 우려를 전혀 하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한다. 친구들의 결의와 자세의 굳건함을 믿은 점이 크겠지만 당시 우리들이 생활화한 보안 수칙에 대한 신뢰도 확실했던 것이다.

앞에서 잠깐 언급했지만, 79년 학생운동의 지도부는 시위 투쟁뿐만 아니라 일상적 선전 활동에도 역량을 주요하게 배분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상당수의 핵심적인 동지들이 유인물 제작 및 배포 등의 선전 투쟁에 투입되었는데 당연하게도 이들은 탈없이 활동을 전개하다가 필요 시점에 시위주동팀에 합류하기로 하였다. 유인물 팀은 교내와 교외를 담당하는 두 팀이 있었는데, 교내팀은 앞서 잠깐 언급한 '지하신문' 발간, 배포를 중심으로 학생 대중

의 의식화와 투쟁 열기 고취를 위해 활동했고, 교외팀은 노동자들이 밀집한 주택가나 극장 등을 무대로 선전 홍보투쟁을 전개하였다. 8월에 터진 YH 사건이 이러한 투쟁의 필요성과 의욕을 고취시키기도 했지만, 근본적으로는 반유신 민주화 투쟁에서 현장론으로 이어지는 70년대 후반 서울대학교 학생운동 주류들의 노선에 따른 것이기도 했다.

한철희, 고세현(국사, 창작과 비평사), 박일룡(국문, 홍익대) 등 인문대 편집팀 친구들이 '지하신문' 팀으로 활동했고, 전동균(치대, ORI 치과), 고영목(교육, 디딤돌), 윤옥준, 송경평(기계설계, 와이즈만 영재교육원) 등 4명의 친구들이 교외팀으로 뛰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이 동지들은 상당 기간을 경찰의 수사망을 피해 활약하였는데 그만 영등포의 한 극장에서 유인물을 뿌리던 후배 한 명이 경찰에 잡히면서 문제가 생기고 말았다. 결국 교외팀을 이끌던 친구들이 차례로 연행되었고 그 불똥이 교내팀까지 미치게 되어 유인물팀은 활동을 접을 수밖에 없었다.

9월에 세 차례의 대규모 시위투쟁으로 긴조 철폐 및 반유신투쟁의 열기가 드높아지자 당황한 당국은 강제 징집 조치로 대응해 왔다. 당시 3학년인 77학번들 가운데 대상자가 많았는데 나름대로 저들이 파악한 핵심 인자들을 강제로 휴학시키고 징병하려 했던 것이다. 당연히 이에 대한 반대투쟁을 벌이지 않을 수 없었는데, 이렇게 해서 유종일(경제), 김명인, 황재홍(지학교육), 장훈열(법학) 등이 주동으로 뿔 10.19 시위가 일어나게 된다.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의 사망으로 운동의 정세가 급변하였다. 나는 1년 간의 활동을 마무리짓고 최후의 시위팀을 조직하여 치고나가기로 되어 있었는데(권희도, 고세현, 김유선, 한철희 그리고 나 이렇게 5명을 최후의 팀으로 내정하고 있었다) 이 계획 또한 변경할 수밖에 없었다. 결국 77학번들을 지도하면서 박정희 사후의 달라진 정세에 대처해야 한다는 판단으로 나는 빠지고, 철희와 세현이는 이미 구속된 상태였기 때문에 희도와 유선, 그리고 77학번 후배 안용운(수학교육) 등 3인이 11월 22일 학원민주화 선언을 발표하였다. 당시 떠오르고 있던 전두환 등 군부세력에게 경고를 보내는 한편, 학원 및 사회 전반에 걸쳐 신속하게 유신헌제를 타도하고 민주주의를 이룰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었다. 달라진 환경에 경찰도 어찌할 바를 몰랐던지 현장에 있던 사복들은 멀거나 서서 구경만 할 뿐이고 선언문을 되풀이하여 낭독할 때까지 진압 경찰은 출동하지 않았다. 이튿날 서울농대에서 학원 민주화 지지 선

언이 있었다. 그리고 12월 8일, 마침내 긴급조치9호가 폐지되었다.

나는 이내 77후배들과 함께 옛 학생회 자료를 연구하는 등 80년 새학기 학생회를 부활시키는 준비 작업에 들어갔는데, 긴조 시대와는 완전히 다른 합법적, 대중적인 학생운동의 시대가 열릴 것에 한발 먼저 대비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80년 서울의 봄을 지나고 광주를 거칠 때까지 나는 학생운동에 계속 남아 있어야만 했다.

대학생이 되어 몇 년 간 공부를 한 것으로 역사에 대해, 사회와 경제에 대해 알면 얼마나 알겠는가. 세월이 흘러 생각해 보면, 종속이론을 공부하고 스위지와 바란, 그리고 마르크스를 읽으면서 우리 사회와 경제에 내렸던 진단이나 운동의 방법론 가운데는 치우친 부분이 있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런 것이 아닐 터이다. 진정 소중한 가치는 그 시절 우리가 즐겨 불렀던 노래 “정의와 용기는 젊음의 생명..”의 한 구절에 담겨 있는 것이 아닐까. 국민의 자유와 민주를 극단적으로 억압한 박정희 유신독제는 백반을 양보해도 선이 아니었으며 타도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도대체 대통령의 명령 하나가 헌법 위에 군림하면서 10년 가까이 국가를 지배하는 그런 나라가 세상 어디에 있단 말인가. 노동자를 사회 변혁의 주체로 세운다는 것도 당시 우리 사회의 발전 단계로 보면 오히려 더 크게 강조해야 할 주장이었다고 생각한다.

비록 거칠고 투박한 점이 있었다 해도, 어떤 명예도 없이 몇 년의 감옥살이와 장래의 희생을 기꺼이 감수한 20대 청춘을 어찌 아름답다고 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인생의 긴 여정에서 대학생이었던 몇 년이 비록 짧은 시간에 지나지 않더라도 우리가 이 시기를 여전히 소중하게 추억하고 기념해야 하는 이유이다.